

## 1월 인천공항 수송통계

## Analyst 강동진

02) 3787-2228

dongjin.kang@hmcib.com

- 인천공항 국제여객 수송량 +11.2%. 춘절로 인한 영업일수 감안하면 국제선 강세 인상적. 원화 강세로 인한 출국자 증가 영향 판단
- 미주노선 강세는 여전히, 동남아 노선 고성장세 지속. 일본노선 영향 점차 감소
- 대한항공, 항공화물 Capacity Cut 강화. 점차 수익성 개선 기대

### 인천공항 국제여객 수송량 +11.2%. 원화강세로 인한 출국자 강세. 여객 Mix 개선 추세

1월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송인원은 353만명을 기록하여 전년동월 대비 11.2% 성장하였다. 2012년에는 1월에 춘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단히 큰 폭 성장이며, 춘절이 포함되어있는 2월에는 더욱 성장세가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환승객은 64만명(+8.3%, yoy)을 기록하였으며, 환승객을 제외한 직항여객은 289만명(+11.9%, yoy)를 기록하여 환승객 비율은 18.4%를 기록하였다. 특히, 환승객을 제외한 직항 여객이 환승객 보다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여객 Mix는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한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일본노선의 여객 성장율이 8.2% 증가하여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수익성이 높은 inbound 보다는 원화 강세로 인한 내국인의 outbound 수요가 이끄는 회복세인 것으로 판단하여, 아직까지 노선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일본노선이 점차 회복되어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상케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노선을 제외한 중국 및 동남아 노선 등 아시아 단거리 노선은 꾸준히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 노선 운항 감축으로 오히려 운항이 늘어난 동남아노선 이용객은 120만명(+23.2%, yoy)를 기록하여 고성장세를 지속했으며, 중국노선 이용객은 86만명(+3.0%, yoy)을 기록하였다. 장거리 노선인 미주노선은 환승객이 18만명(+3.5%, yoy)를 기록하였으나, 환승을 제외한 직항 여객이 30만명을 수송하여 6.9% 성장하면서 환승객 성장세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노선의 환승객이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한 영향이다. 하지만, 2013년에는 춘절이 2월이기 때문에 환승객 증가율은 2월에 소폭 회복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여객 부문은 일본 노선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원화 강세로 인한 출국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주 노선의 경우 중→미 환승객 감소로 인해 환승객 증가세가 둔화 되었으나, 대한항공의 경우 여전히 미주노선 L/F가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미 환승객 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여객 Mix 차원에서 개선이 진행되며 장거리 노선 수익성이 개선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표1>인천공항 노선별 국제여객 수송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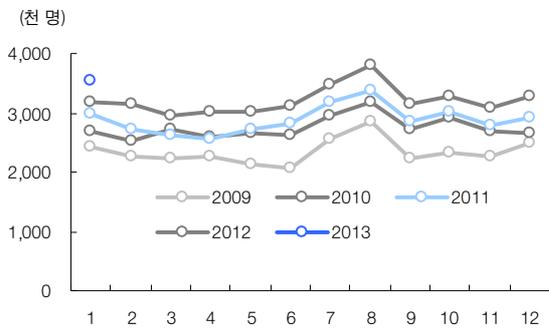
노선별 국제여객 수송인원 (명)								
	일본	동남아	미주	중국	구주	대양주	기타	합계
11.01	535,497	861,372	403,156	807,974	165,139	72,923	132,073	2,978,134
11.02	530,207	783,580	334,003	753,875	137,563	61,874	108,863	2,709,965
11.03	475,612	733,572	373,681	725,021	152,288	53,792	112,599	2,626,565
11.04	326,631	715,768	365,805	801,568	170,821	49,617	113,165	2,543,375
11.05	373,696	712,521	414,040	841,321	206,575	47,516	135,285	2,730,954
11.06	418,153	719,340	419,838	857,716	198,970	46,644	148,838	2,809,499
11.07	488,193	822,168	469,315	934,274	227,690	63,862	179,035	3,184,537
11.08	566,668	870,322	489,966	997,809	222,359	57,224	182,131	3,386,479
11.09	527,277	703,929	394,457	806,034	202,318	54,913	147,970	2,836,898
11.10	556,178	791,281	405,707	853,169	207,388	64,092	152,312	3,030,127
11.11	541,149	762,040	381,181	739,969	156,017	62,178	131,803	2,774,337
11.12	526,950	867,763	417,169	739,094	158,133	85,173	132,623	2,926,905
12.01	509,734	970,117	452,418	835,222	181,979	90,758	139,669	3,179,897
12.02	553,710	941,202	376,158	775,242	163,009	67,974	131,543	3,008,838
12.03	604,090	863,144	376,084	741,016	176,441	56,925	134,043	2,951,743
12.04	545,215	868,810	400,501	814,834	190,477	51,886	135,895	3,007,618
12.05	552,600	786,364	442,086	827,536	218,736	46,855	147,297	3,021,474
12.06	550,700	803,057	457,524	849,446	223,785	53,752	172,406	3,110,670
12.07	598,261	889,091	484,719	1,002,604	243,438	59,961	196,823	3,474,897
12.08	710,329	975,994	505,832	1,100,407	238,464	59,156	197,511	3,787,693
12.09	609,054	779,589	427,510	884,373	224,345	56,628	170,620	3,152,119
12.10	548,554	910,960	439,615	947,017	221,067	59,544	158,665	3,285,422
12.11	531,138	929,193	416,172	834,007	171,541	57,474	148,303	3,087,828
12.12	541,064	1,057,888	456,914	820,656	176,747	78,407	151,101	3,282,777
13.01	551,438	1,195,597	477,809	859,882	200,551	81,501	168,038	3,534,816

성장률 (yoy, %)

	일본	동남아	미주	중국	구주	대양주	기타	합계
11.01	-6.3	18.0	12.6	15.8	4.3	-7.4	23.6	10.3
11.02	-4.8	19.6	8.8	4.9	1.8	-6.0	16.5	7.0
11.03	-24.4	8.8	10.0	-1.8	-3.6	-19.0	7.1	-3.1
11.04	-38.4	12.8	8.9	3.0	23.9	-10.7	0.4	-1.6
11.05	-30.6	18.4	8.6	7.2	16.0	-10.1	3.2	2.3
11.06	-19.0	24.2	6.9	11.3	10.8	-12.5	8.2	6.9
11.07	-12.6	26.7	11.0	5.2	14.5	4.1	9.9	8.3
11.08	-11.9	24.3	11.5	0.9	13.0	-3.9	10.3	6.0
11.09	-8.3	16.7	5.4	1.4	12.3	-1.1	12.1	4.5
11.10	-7.6	13.3	4.3	-0.6	10.0	8.0	10.9	3.3
11.11	-1.4	5.1	9.5	-0.7	8.0	1.3	12.1	3.1
11.12	5.5	14.2	15.8	4.7	13.3	21.0	18.0	10.5
12.01	-4.8	12.6	12.2	3.4	10.2	24.5	5.8	6.8
12.02	4.4	20.1	12.6	2.8	18.5	9.9	20.8	11.0
12.03	27.0	17.7	0.6	2.2	15.9	5.8	19.0	12.4
12.04	66.9	21.4	9.5	1.7	11.5	4.6	20.1	18.3
12.05	47.9	10.4	6.8	-1.6	5.9	-1.4	8.9	10.6
12.06	31.7	11.6	9.0	-1.0	12.5	15.2	15.8	10.7
12.07	22.5	8.1	3.3	7.3	6.9	-6.1	9.9	9.1
12.08	25.4	12.1	3.2	10.3	7.2	3.4	8.4	11.8
12.09	15.5	10.7	8.4	9.7	10.9	3.1	15.3	11.1
12.10	-1.4	15.1	8.4	11.0	6.6	-7.1	4.2	8.4
12.11	-1.8	21.9	9.2	12.7	10.0	-7.6	12.5	11.3
12.12	2.7	21.9	9.5	11.0	11.8	-7.9	13.9	12.2
13.01	8.2	23.2	5.6	3.0	10.2	-10.2	20.3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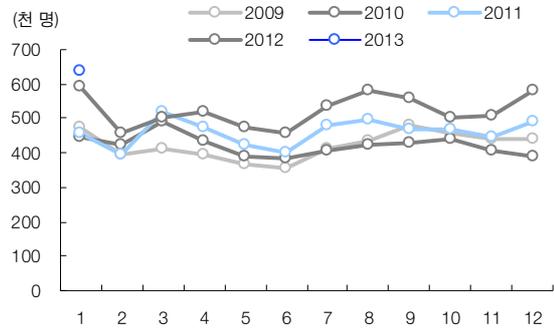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1〉 인천공항 국제여객 수송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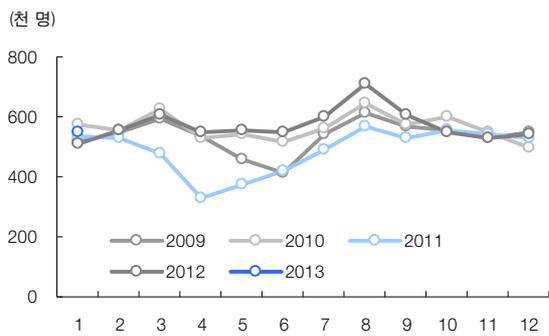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2〉 인천공항 국제선 환승객 수송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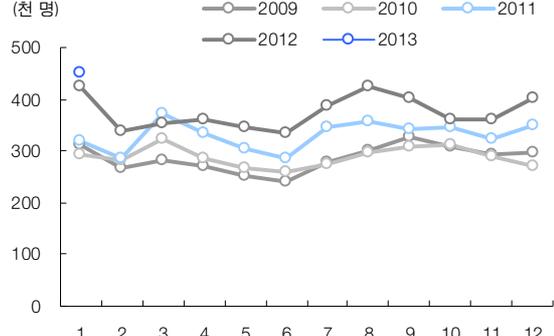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3〉 인천공항 일본노선 여객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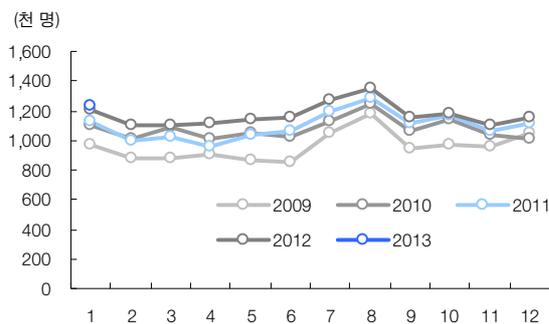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4〉 대한항공 환승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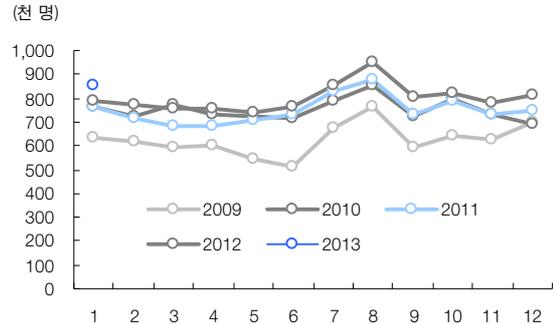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5〉 대한항공 국제여객 수송객 수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6〉 아시아나항공 국제여객 수송객 수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화물시황 약세에 대처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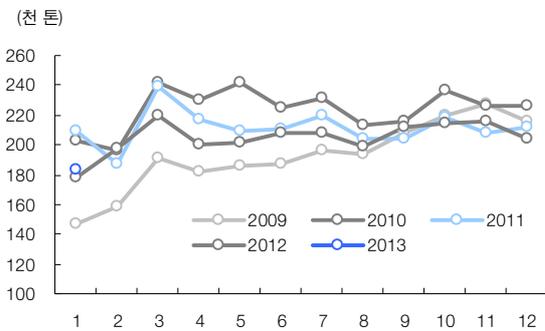
인천공항의 국제선 항공화물 수송량은 18.3만톤(+2.5%, yoy)을 기록하였다. 역성장세를 멈추기는 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춘절영향으로 영업일수가 더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세로의 전환은 의미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화물 수송은 7.6만톤(-13.3%, yoy)을 기록하여 역성장세가 전월대비 확대되었으나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1만톤(+13.8%, yoy)를 기록하여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화물기 운항 면에서 대한항공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월간 124편의 화물기 운항을 감축하였다. 이는 전체 화물기 운항의 14.0%를 감축한 것이다. 연초부터 동사는 수익성 위주의 화물 사업 운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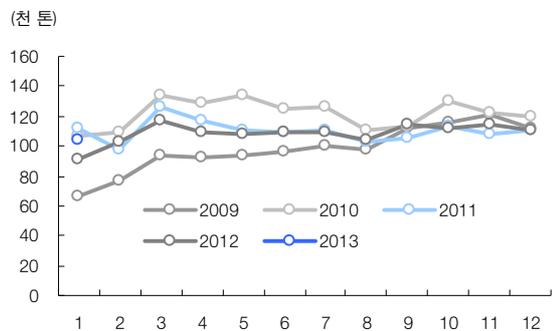
반면 아시아나 항공은 2012년 하반기 화물기 2대를 도입하여 전년동월비 화물기 운항 횟수가 89편 늘어났는데, 이는 전체 화물기 운항을 전년 동기비 19.2% 확대한 것이다. M/S를 어느 정도 확보 한 이후 수익성 위주로의 변화가 진행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7〉 인천공항 국제화물 처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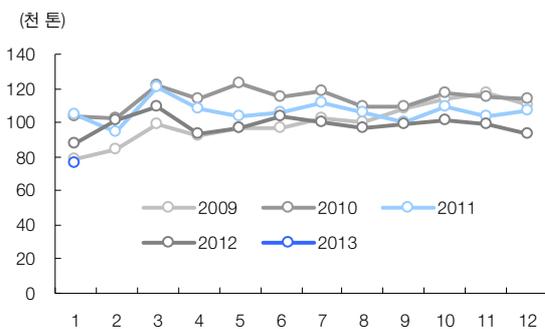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8〉 인천공항 직화물 처리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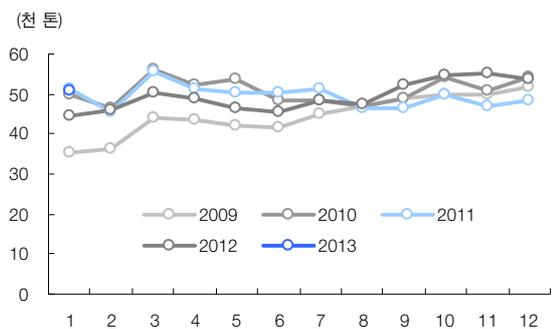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9〉 대한항공 국제화물 처리량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그림10〉 아시아나항공 국제화물 처리량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표2>인천공항 화물 처리량

	인천공항(톤)	(YoY, %)	대한항공(톤)	(YoY, %)	아시아나(톤)	(YoY, %)	직화물(톤)	(YoY, %)
10.01	202,150	38	103,041	31	50,016	41	106,789	60
10.02	196,753	24	102,048	22	46,332	28	108,638	43
10.03	241,922	26	121,980	23	55,941	28	134,167	42
10.04	229,533	26	113,283	23	52,381	21	128,997	39
10.05	241,270	30	122,601	27	53,622	27	133,514	42
10.06	225,321	20	114,616	18	48,372	17	124,285	30
10.07	230,943	17	118,008	15	48,288	7	126,046	25
10.08	213,345	10	108,935	9	46,955	0	111,160	15
10.09	215,188	3	109,206	1	48,746	0	112,822	1
10.10	236,304	8	117,540	3	54,300	9	130,535	13
10.11	225,726	-1	114,829	-2	50,863	2	121,717	1
10.12	225,752	5	114,054	3	53,982	5	119,152	7
11.01	209,578	4	104,315	1	51,321	3	112,278	5
11.02	186,791	-5	94,726	-7	45,540	-2	97,692	-10
11.03	238,798	-1	120,799	-1	55,465	-1	126,800	-5
11.04	217,105	-5	107,738	-5	51,386	-2	117,524	-9
11.05	209,093	-13	104,072	-15	50,497	-6	111,027	-17
11.06	211,121	-6	105,593	-8	50,255	4	109,768	-12
11.07	219,950	-5	111,709	-5	51,192	6	110,323	-12
11.08	204,527	-4	105,584	-3	46,558	-1	102,311	-8
11.09	204,370	-5	100,422	-8	46,634	-4	105,890	-6
11.10	217,864	-8	109,764	-7	49,847	-8	113,429	-13
11.11	207,986	-8	103,200	-10	47,005	-8	108,555	-11
11.12	211,746	-6	106,569	-7	48,582	-10	109,932	-8
12.01	178,362	-15	88,019	-16	44,527	-13	90,706	-19
12.02	197,146	6	100,881	6	45,770	1	102,295	5
12.03	219,860	-8	108,998	-10	50,464	-9	116,731	-8
12.04	199,628	-8	93,442	-13	48,713	-5	108,985	-7
12.05	201,983	-3	96,809	-7	46,643	-8	108,260	-2
12.06	207,977	-2	103,478	-2	45,387	-10	109,192	-1
12.07	207,348	-6	100,472	-10	48,366	-5	109,410	-1
12.08	199,036	-3	96,803	-8	47,310	2	103,605	1
12.09	211,712	4	99,446	-1	52,279	12	114,689	8
12.10	214,012	-1	101,578	-8	54,644	10	111,785	-1
12.11	215,228	3	99,539	-4	55,149	17	114,128	5
12.12	204,218	-4	92,983	-13	53,476	10	110,710	1
13.01	182862	+3	76,343	-13	50,679	14	104,559	15

자료 : 인천공항공사, HMC투자증권

**여객 Mix 개선 긍정적. 2013년 항공사 경영 키워드는 화물부문 수익성 회복**

항공사 수익기여도가 높은 일본 노선의 부진은 최소한 2013년 1분기까지는 항공사 실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엔화 하락속도가 어느 정도 완화 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 역시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또한, 출국자 중심의 여객 Mix 개선으로 일본노선 악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2013년 국내 항공사들의 경영 키워드는 화물부문 수익성 회복일 것이다. 무엇보다, 중→미간 항공 화물 제한 철폐, IT 제품의 경박단소화, 그리고 아시아 항공 화물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하면, 국내 항공사들이 느낄 수 있는 화물시장 상황은 Global 항공화물 시장의 어려움 보다 더욱 클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화물 공급량 조절 등을 통해 화물 부문의 수익성을 얼마나 개선 할 수 있느냐가 올해 국내 항공사 경영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 Not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해당회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 강동진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 업종 투자의견 분류HMC투자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털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털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털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HMC투자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HOLD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